

선과 여백 아름다움 '수묵의 오늘'

무주군, 최북미술관서 5월 8일까지 5명 작가 작품 선보이는 '수묵화 기획전' 개최

무주군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수묵화 작가들의 작품, '수묵의 오늘' 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오는 5월 8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수묵화 기획전'을 47일 동안 개최해 무주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 출품한 작가들은 유명 수묵화 작가들로 수준 높고 감성이 강한 작품들을 선보여 오랜만에 문화에 감동을 느낀 군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분히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묵의 오늘' 기획전에는 김호석·김미순·박종갑·박지예·이철량 5명의 수묵화 작가들의 열작으로 국내외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작품 활동을 통해 이미 기량과 능력을 인정 받았다.

이들 작가들은 수묵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탐구해 왔으며, 먹의 흐름에 따라 표현되는 한 획의 다양성과 여백의 미를 살리고 고인한 흔적을 내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작품속에 묻어나고 있다.

수묵화는 색을 칠하지 않고 먹물로만 그리는 전통화로서 선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중요시 한다.

'벚꽃' 등의 작품을 내놓은 김호석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 광주, 제주 등지에서 개인전 27회 국내외 단체전 120회를 출품,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다. 1999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국회의사당과 광주시립미술관 등지에 작품이 소장



무주군은 오는 5월 8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수묵화 기획전'을 47일 동안 개최한다.

장패 있다.

김미순 작가는 '족작-어머니'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부산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파리와 뉴델리, 서울 등지에서 개인전 16회 국내외 단체전 60여회 전시했다. 지난 1993년~2021년까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인도 뉴델리, 미국 맨하탄 등지에서 작품들을 선보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박종갑 작가는 국내외 단체전 250여회와 독일과 서울, 전주에서 개인전 16회를 전시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문명-쌍대(稱)' 시리즈를 선보인다.

'얽집어인' 시리즈를 그린 박지예 작가는 원광대 미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동대학원

을 졸업했다. 개인전 9회와 국내외 단체전 80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드러냈다.

이철량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서울, 광주 등에서 개인전 25회와 국내외 단체전에서 300회 자신의 작품을 공개했다. 전북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와 교수, 동아미술제와 MBC 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북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another nature' 시리즈를 발표했다.

무주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먹과 종이는 단순한 재료의 개념을 넘어 각기 다른 소재와 표현 방법 등으로 재해석 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묵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신문 기자

진안군-전북동부 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 파트너십 스킴' 진행

진안군은 23일 전북동부 문화재돌봄센터와 문화재 파트너십 스킴(Scheme)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파트너십 스킴'이란 문화재 돌봄센터와 기초지자체의 문화재 업무 담당자가 만나, 문화재 훼손 현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돌봄센터에서 정기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미보수와 대보수를 분리·관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차기년도 보수·정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이뤄지는 문화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적시적소에 보수가 이뤄져 문화재 보

존 환경 개선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의 훼손이 진행될 상태에서 수리 하는 것보다 사전에 관리하고, 보수의 우선 순위를 파악해 적절한 보수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기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수립 전에 문화재 보존 실태를 공유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윤지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이야기꾼님은 tvN 예능프로그램 '신박한 정리'에서 출연자들의 집을 환골탈태시켜 화제를 모았던 우리집공간컨

설파팅 이지영 대표가 출연해 '신박한 정리, 공간의 힘'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리·수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더불어 배우는 법, 정리하는 법, 유지하는 법, 효율적인 수납, 가구 재배치와 공간 재구성성을 통해 집을 더욱 편안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본다.

우리음악 즐기는 '창작음악양상'을 오리지널이 출연해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랑가'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창작음악 양상 오리지널은 2018년 결성된 단체로, 201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한 서울문화재단 선정작 '가짜신선터'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60명)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5기 레지던시 정기 입주작가 프리뷰展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5기 작가 7명 소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4월 17일까지 팔복예술공장 A동 전시실에 '2022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로그인 Log-''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리뷰전은 팔복예술공장에서 한 해 동안 활동할 5기 정기 입주작가 7명을 소개하는 전시다.

이번에 선발된 5기 레지던시 정기 입주작가는 권다예, 김영봉, 김희선, 문채원, 윤미류, 장영애, 정희정 등 7인으로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로그인 Log-'은 다중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 사용자임을 알리는 '로그인' 과정에 접근해 전시를 기획했다. 7인의 작가는 팔복예술공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작품명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람객은 작가의 작품에서 고유한 비밀번호를 찾아가며, 작가의 사유의 시간

에 로그인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는 2018년부터 매년 입주작가를 선정해 시각예술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 창작기획팀 김진 차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보여줄 서사의 첫 시작점으로 작가들의 앞으로 작업 경향과 나아갈 방향이 기대되는 전시"라며 "전주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친근한 동반자로서 예술 활동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창작 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 (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민오케스트라' 3593만원 최고액 지원

부안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에 군민오케스트라·청춘극단 선정

부안예술회관이 지난 21일 '2022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군민오케스트라와 청춘극단이 선정되어 총 5,433만원을 지원받는다.

그 중 군민오케스트라는 선정된 79개의 프로그램 중 최고 금액인 3,593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2022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회관 교유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력 제고에 목적이 있다.

군민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악기교육과 합주를 통해 상호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매년 국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 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1위를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청춘극단은 작년 처음 선정되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잇는 연극으로 예술향유의 즐거움을 공유하며, 시나리오 개발부터 공연까지 예술활동으로 개인의 성장계기와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예술회관은 지속적으로 우수 공연과 공연 기획 프로그램 등을 선정 받아 부안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문화예술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목공예 체험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열린공간 운에서 목공예 '목재 장난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공예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평소 접하기 어렵지만 이번 체험은 누구나 쉽게 목재 장난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8각의 형태로 재단된 나무에 미리 구멍을 뚫고 손잡이를 넣을 모양을 만들어

조립이 쉽도록 했으며, 사포작업, 천연 미네랄 오일 등을 발라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목공예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비 없이 수업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홍진근 관장은 "목공예는 기능성과 실용성, 예술성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체험이 만큼 색다른 문화 경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